

고마움 경험과 표현방식의 남녀 차

손 영 미

명지대학교

김 효 창[†]

인천대학교

김 정 운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고마움의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에 있어 성차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들은 4개의 고마운 상황조건(상대방의 희생 高低×낮선 사람/친한 사람)에 대해 고마움 경험정도를 평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고마움을 표현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요구받았다. 전체 28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남성 164명, 여성 116명이었다. 조사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첫째 상대방의 희생정도가 큰 상황에 대해 고마움을 더 많이 느꼈으며, 낮선 사람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물질적인 보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셋째, 친한 사람이 작은 희생을 한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적 표현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물질적 보상을 더욱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한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언어적 표현을, 남성은 여성들에 비해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더욱 보였다. 마지막으로, 친한 사람의 큰 희생행동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마움을 적게 느꼈으며,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여성에 비해 무표현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고마움, 감사, 정서, 정서표현, 성차, 한국인, 대인관계

[†] 교신저자 : 김효창,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E-mail : snowsun@hanmail.net, Tel : 032-835-8173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은 그 동안의 힘듦을 잊어버리게 하며, 상대방에게 생겼던 서운함을 녹여준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님에게 대한 자식의 고마움의 마음은 그동안 자녀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고생스러운 마음을 녹이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 애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고맙다는 말과 마음은 상대방의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대로 상대의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섭섭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듯 고마움 정서의 경험과 표현은 파괴적 대인관계 행동을 억제하며,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긍정적 대인관계를 이끈다(McCullough, Bellah, Kilpatrick, Johnson, 2001) 중요한 사회적 정서이다.

고마움과 감사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상당수는 이들 정서의 경험과 심리적 건강간의 긍정적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고마움과 감사정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의 삶의 질과 안녕감은 증진되며(김별님, 이인혜, 2009; Toussaint & Fredman, 2009), 삶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성격적 성향은 우울증, 불안, 공포 등과 같은 정신병리와 부적의 관계성이 있고(Geraghty, Wood & Hyland, 2010; Wood, Froh & Geraghty, 2010; Wood, Joseph & Maltby, 2009),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노혜숙, 신현숙, 2008; Wa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또한 고마움과 감사성향

은 스트레스상황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더욱 뚜렷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노지혜, 이민규, 2011). 이러한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연구들은 고마움에 대해 회상하거나 감사일지를 쓰는 것, 감사 표현의 편지를 쓰는 것 등의 감사개입(gratitude intervention)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정서경험, 도움행동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노지혜, 이민규, 2011; 신현숙, 2007; Froh, Kashdan, Ozimkowski & Miller, 2009; Emmons & McCullough, 2003). 또 다른 고마움과 감사 연구의 동향으로 성격적 성향으로서의 감사를 개념화하고(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Diessner & Lewis, 2007;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a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이렇듯 고마움과 감사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특히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감사성향을 측정하고, 이것과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데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고마움과 감사정서의 경험 및 표현방식과 이들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성차 등)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국내의 경우, 청소년과 주부 등의 계층을 대상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대상과 이유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김경미, 조진형, 김동원, 김정희, 2009; 신현숙, 2007), 고마움을 경험하는 상황조건에 따라 고마움을 경험하는 정도와 표현방식이 다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마움 정서유발상황을 스크립트로 제작하여, 각 상황에 대한 고마움의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간에

보여지는 성차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언제 고마움을 느끼는가?

강도와 표현방식은 고마움 유발행동의 특성과 그러한 행동이 유발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마움 정서경험의 주요 상황 중 하나인 도움행동에 대해 살펴본 Eisenberg(1983)는 도움상황에서 아동들은 잠재수혜자가 가족과 친구인 경우에 더 많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으며, 싫어하는 사람을 더 돕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정영숙(1999)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일 때보다 모르는 아이에게, 모르는 아이보다는 아동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상을 더 많이 나누어주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도움행동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친밀성이 대인관계 행동패턴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임을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최상진(2000)은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나 친한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긴밀한 동료관계와 같은 우리성 인간관계가 전제될 때 그 형태는 우리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형태와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정(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최수향, 1990), 우리성(최상진, 2003), 심정(최상진, 1999) 등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우리성 대인관계의 주 화폐는 행위교환이라기 보다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읽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심정을 공경험하며, 그에 부합되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과 자신은 우리성-정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상진, 이장주, 1999).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인 삐침에 대해 연구한 송경재 등(2010)은 삐침을 친구, 가족, 애인과 같은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섭섭함, 화, 불쾌함, 속상함 등의 감정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형태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정의 표현행위에 대한 연구(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2003)에서도 정의 주요한 표현행위로 아껴주는 행위(도와줌, 자주 만남, 선물함) 이외에 투명스럽게, 알뜰게 말하는 언행 등과 같은 격의 없는 행위가 두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격의 없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의 관계에 있을수록 예의를 갖추지 않고 부담없이 대할 수 있으며, 사회공공규범의 논리에 적합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고마움 정서의 경험과 표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우리성-정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행동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희생비용에 따라 고마움의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되는 결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너무 크다면 도움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Kelly & Thibaut, 1978). 그렇기에 희생해야 하는 부담과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고 지각되는 도움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게 할 수 있다. Tesser, Gatewood 그리고 Driver(1968)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이익이 본인에게 가치가 있고, 상대

방이 자신을 도와줄 의도성을 갖고 그 이익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상대방에게 다소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Naito, Wangwan 그리고 Tani(2005)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이들에게 부과된 수고와 비용,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얻는 혜택 등과 같은 도움상황의 특징에 따라 감사경험의 정도가 좌우된다고 하였다. 본 고에서는 한국인의 정서경험에 있어 상대방과의 관계성(친밀성)이 주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대방과의 관계성(친밀성) 정도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와 표현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마움 정서경험의 주요 변수라 판단되는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마움 경험 및 표현에서의 성차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사회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더 허용적이며, 남성에 비해 의사소통과 상호의존성, 보살핌, 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것 등을 더욱 중요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Naito, Wangwan & Tani, 2005).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남자는 평생 3번 눈물을 흘린다’는 등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같은 문구들은 외재적·암묵적으로 얼마나 남성들의 정서가 억압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실제 정서에 관한 많은 성차연구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보편적으로 정서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잘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arrett, Lane, Sechrest & Schwartz, 2000; Ekman, 1992; Fujita, Diener & Sandvik, 1991; Kring & Gordon, 1998).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차폐와 정서양가성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장정주, 김정모, 2008; Gross & John, 1997; Gross & Levenson, 1993). Gross와 John(1998)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 모두를 더 잘하며, 정서의 경험강도도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정주와 김정모(2008)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표현의 갈등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고마움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마움을 더욱 느끼며(Sommers & Kosmitzki, 1988), 고맙다는 표현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이며 (Ventimiglia, 1982), 감사성향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남성과 여성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부합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고, 그것은 정서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70개국 남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연구한 Schwartz와 Rubel(2005)은 남성은 권력, 새로움, 자극, 쾌락 그리고 성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반면 여성은 관계를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것, 인내, 친절함 등을 중요한 가치로 꼽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 간의 감사이유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신현숙(2007)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사랑과 지지를 제공받았을 때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 남학생들은 지식과 가르침을 받았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고 보고함으로써 고마움 정서

경험에 남녀간 서로 다른 가치가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권력과 성과 등을 중시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위약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도움행동을 다시 되갚음으로써 고마움 경험을 회피하거나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숨기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반면 여성들의 경우,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움 유발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와 좀 더 친해지고 싶으며,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사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에 있어 매우 기능적이며, 유익이 되는 것일 수 있다(Schwartz & Rubel, 2005). 이 같은 남녀 간의 고마움 경험 및 표현에서의 심리적 차이는 고마움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빗짐의 마음상태로 일부 이해될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상태인 고마움과 달리 빗짐은 각성과 불편감을 수반하는 정서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 하고(회피의 동기에 의해 작동되고), 상대방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Tsang, 2006; Wakins, Scheer, Ovnicek & Kolts,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성들은 독립성, 권력, 다른 사람보다 강함, 남성성 등을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마움유발행동은 불편감을 수반하며,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 물질적 보상 등으로 되갚으려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결국, 이상의 논의는 고마움의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으로 고마움의 상황조건(상대방의 희생 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라 고마움을 경험하는 정도와 표현방식에 있어 남녀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상대방의 희생 정도(큰 희생 vs 작은 희생)와 친밀성정도(친한 사람 vs 낯선 사람)에 따른 고마움 정서유발상황 스크립트를 제작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한 남녀간 고마움 정서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 고마움의 표현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현방식을 무표현,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 물질적 표현으로 구분한 후 각 스크립트 상황에 따른 표현방식의 남녀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대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294명의 질문지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질문지 14부를 제외한 28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성은 164명으로 58.6%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116명으로 41.4%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22.65(SD=2.54)세였으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58(SD=1.47)세로 나타났다.

조사도구

고마움 정서경험 스크립트

본 연구는 고마움 정서의 경험정도와 표현 방식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마움 관련 스크립트를 제작하였다. 스크립트 제작은 2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먼저 고마움, 감사, 도움행동, 이타행동 등의 관련 연구물 고찰을 통해 고마움 정서경험 관련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방형 설문을 통해 고마움 정서경험의 상황 및 표현 방식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개방형설문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104명(남: 49명, 여: 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낀 상황과 대상, 이유, 표현방식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낀 상황과 대상, 이유, 표현방식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박사급 연구자 3인에 의해 분석되었다.

문헌조사와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고마움 정서경험의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된 상대방의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라 스크립트를 제작하였으며, 각 스크립트에 사용된 구체적 사례들은 개방형 설문조사의 내용분석 결과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스크립트는 상대방과의 친밀성 정도(낮선 사람/친한 사람)와 희생정도(큰 희생/작은 희생)에 따라 총 4개의 조건(낮선 사람으로부터의 큰 희생, 낮선 사람으로부터 작은 희생, 친한 사람으로부터 큰 희생, 친한 사람으로부터 작은 희생)으로 구성되었다. 각 조건마다 2개씩 총 8개의 스크립트가 제작되었다(표 1참고). 조사대상자는 각 상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

표 1. 4개의 고마움 조건상황에 대한 스크립트 내용

조건	문항
낮선 사람 * 큰 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혼잡한 길을 가다가 소지품을 떨어뜨렸다. 길 가던 사람이 20미터나 쫓아와서 나에게 소지품을 건네주었다 - 나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그곳은 초행이면 찾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하고 10분이나 소요되는 거리를 안내해 주었다
낮선 사람 * 작은 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 앞에 서있는 사람에게 ‘급해서 그러니 화장실을 먼저 써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았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용해도 된다고 양보해주었다 - 나는 길을 가다 책을 떨어뜨렸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진 책들을 함께 주워주었다
친한 사람 * 큰 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하게 수업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친구에게 과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친구도 과제 때문에 바쁜 상황이었는 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빌려주었다
친한 사람 * 작은 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친구가 나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해 주었다 -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고마움 정서표현방식

8개의 스크립트 상황에 대한 고마움 표현방식은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물질적 보상, 표현하지 않음의 4개의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이들 질문은 고마움 스크립트의 제작과정과 마찬가지로 개방형설문조사와 고마움 및 정서표현 관련 기존 연구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방식의 범주를 함께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먼저 개방형설문을 통해 ‘문자나 이메일, 편지 등으로 고마움을 전달한다, 특별히 표현하지 않는다, 직접 말로 고마움을 표현한다, 인사, 웃음, 눈물, 포옹, 악수, 애교, 장난치기 등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한다, 선물, 밥, 음료수 등을 사주는 등 고마운 마음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한다’ 등의 범주들이 추출되었다. 여기서 문자나 이메일, 편지 등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주로 가능한 표현방식이라 판단되어 질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고마움유발상황에 대해 빗집의 정서경험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고마움 정서가 되갚음 혹은 물질적 보상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Wakins, Scheer, Ovnicek & Kolts, 200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4개의 질문이 제작되었는 바, 고마움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언어적 표현), 고마움을 인사, 웃음, 포옹, 악수, 애교, 장난치기 등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한다(비언어적 표현), 고마움을 선물, 밥, 음료수 등을 사주는 등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물질적 보상), 특별히 표현하지 않는다(무표현) 등이었다. 각 질문은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스크립트 상황에 대

해 해당표현방식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절차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간략 설명을 들은 후 평가를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조사대상자는 8개의 고마움유발상황 스크립트를 모두 제시받았으며, 각 스크립트를 읽은 후 자신이 직접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각 스크립트마다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물질적 보상, 표현하지 않음의 4가지 표현방식에 대한 질문을 제시받았으며, 각 상황에서 4가지 표현방식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라 판단되는지를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스크립트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8개의 스크립트가 제시되는 순서를 다르게 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4가지의 조건(큰 희생/작은 희생*낮선 사람/친한 사람)에 따라 남녀 간에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와 표현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크립트에서 상대방의 희생 정도가 제대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희생高와 희생低 스크립트 간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대한 평균차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희생정도와 친밀성에 따라 고마움 정서경험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황별

(희생 고/저, 상대와의 친밀성) 고마움 정서 경험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와 상황(희생 고/저, 상대와의 친밀성)에 따른 고마움 정서 경험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고마움의 표현 방식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대와의 관계에 따른 고마움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와 고마움 표현 방식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Windows version 18.0)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결 과

스크립트의 조작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크립트에서 상대방 희생 정도가 제대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 8개의 스크립트 중 4개의 스

크립트는 상대방의 희생 정도가 큰 경우이며, 나머지 4개의 스크립트는 상대방의 희생 정도가 작은 경우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가 낮은 사람인 경우와 친한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 희생 정도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의 스크립트 간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대한 평균 간 차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방이 낮은 사람인 경우와 친한 사람인 경우 모두에서 희생高的 상황이 희생低的 상황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욱 희생을 많이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사람의 경우, 희생 정도가 큰 스크립트의 평균은 6.40이었으며, 희생 정도가 작은 스크립트의 평균은 5.65로 나타났다($t=15.38, p<.001$). 친한 사람의 경우, 희생 정도가 큰 스크립트의 평균은 6.25이었으며, 희생 정도가 작은 스크립트의 평균은 5.61로 나타났다($t=14.45, p<.001$). 이는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대한 스크립트 조작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 2. 낮은 사람과 친한 사람에 따른 스크립트의 상대방 희생 정도의 평균간 차

상대방 조건	희생정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낮은 사람	高	6.40	.68	15.38***
	低	5.65	.79	
친한 사람	高	6.25	.74	14.45***
	低	5.61	.91	

*** $p<.001$

표 3.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합(SS)	자유도(df)	평균자승화(MS)	F
희생정도	135.804	1	135.804	444.076***
친밀성정도	2.508	1	2.508	7.576**
희생정도×친밀성	0.751	1	0.751	2.468
오차		279	.304	

*** $p<.001$ ** $p<.01$

고마움의 정서 경험에서의 남녀 간의 차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

상대방의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라 고마움 정서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 주효과만 있을 뿐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따라 고마움 정서경험에 차이가 있으며($F=444.076, p<.001$), 상대방과의 친밀성에 따라 고마움 정서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7.576, p<.01$)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 간 남녀 차이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4),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희생정도가 큰 스크립트 상황에서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t=21.07, p<.001$). 남녀 모두 희생정도가 작은 상황보다 희생정도가 큰 상황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반응차이가 유의도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낯선 사람이냐 친한 사람이냐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친한 사람에 비해 낯선 사람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t=2.77, p<.01$). 그러나 남녀 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 남성은 친한 사람에 비해 낯선 사람에게 고마움을 더욱 느끼는 것($t=2.13, p<.05$)으로 드러난 반면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냐 낯선 사람이냐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방의 희생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5), 상대방의 희생정도가 큰 상황에 대해서만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 남녀간 유

표 4.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

	상황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희생정도	전체	고	6.33	.60	21.07***	
		저	5.63	.74		
	남성	고	6.26	.66	13.54***	
		저	5.65	.80		
		여성	고	6.42		.50
			저	5.62		.63
친밀성정도	전체	낯선	6.03	.61	2.77**	
		친한	5.91	.74		
	남성	낯선	6.00	.69	2.13*	
		친한	5.91	.76		
		여성	낯선	6.06		.49
			친한	5.98		.67

*** $p<.001$ ** $p<.01$ * $p<.05$

표 5. 희생정도와 친밀성에 따른 고마움 정서 경험에서의 남녀 간 차

상황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희생 정도	高	남	6.26	.66	-2.33*
		여	6.42	.50	
	低	남	5.65	.80	.28
		여	5.62	.63	
친밀 성정도	낮선 사람	남	6.00	.69	-.84
		여	6.06	.49	
	친한 사람	남	5.91	.77	-.88
		여	5.98	.67	

* $p < .05$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대방의 희생정도가 큰 상황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희생정도가 작은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고마움 정도는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방과의 친밀성 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 간 남녀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중첩시켜 살펴보면, 희생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에 있어서 남녀 모두 희생 低의 상황에 비해 희생 高의 상황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희생 高/低 각각의 상황에 대한 고마움정서경험의 남녀 차에서는 희생 高의 상황에 대해서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고마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희생 低의 상황에서는 고마움 경험수준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녀 모두 희생 高의 상황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방과의 친밀성 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에 있어서는 남

녀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남성은 친한 사람에 비해 낯선 사람에게 더욱 고마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여성은 친밀성 정도에 따른 고마움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마움의 표현 방식에서의 남녀 간의 차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고마움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의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희생 高의 상황에서는 친한 사람의 경우보다 낯선 사람에게 더욱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t=4.72, p<.001$), 친한 사람에게서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t=-2.18, p<.05$) 물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성($t=-14.34, p<.001$)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 低의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낯선 사람에 비해 친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t=-5.71, p<.001$) 물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경향($t=-15.71, p<.001$)이 더욱 높았으며, 낯선 사람에게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고마움을 전달하려는 경향

표 6.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고마움 표현방식의 차이

상황	표현방식	친밀성	평균	표준편차	t값
희생高	무표현	낮선 사람	1.75	1.05	.93
		친한 사람	1.70	1.11	
	언어적 표현	낮선 사람	6.21	.84	4.72***
		친한 사람	5.94	1.03	
	비언어적 표현	낮선 사람	3.74	1.57	-2.18*
		친한 사람	3.93	1.56	
	물질적 보상	낮선 사람	3.92	1.31	-14.34***
		친한 사람	5.27	1.41	
희생低	무표현	낮선 사람	1.88	1.10	-.83
		친한 사람	1.93	1.17	
	언어적 표현	낮선 사람	6.07	.95	5.87***
		친한 사람	5.75	1.10	
	비언어적 표현	낮선 사람	3.40	1.62	-5.71***
		친한 사람	3.88	1.48	
	물질적 보상	낮선 사람	2.60	1.32	-15.71***
		친한 사람	3.93	1.40	

*** $p < .001$ * $p < .05$

성($t=5.87, p<.001$)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표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희생高와 희생低의 상황 모두, 친한 사람에게는 비언어적 표현과 물질적 보상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으며, 낯선 사람에게는 언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희생高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친밀성에 따른 고마움 표현 방식 간 남녀 차

희생高의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친밀성정도에 따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낯선 사람인 경우, 물질적 보상에 있어서만 유의도 .05수준에서 유의한 남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평균은 4.07점, 여성의 평균은 3.7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성을 더욱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대방이 친한 사람인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언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t=-2.39, p<.05$),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이 더욱 높았다($t=3.06, p<.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언어적 표현(남: 5.84점, 여: 6.07점)과 물질적 보상(남: 5.18점, 여: 5.40점)에 대한 남녀 간 평균 차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이 희생을 많이 한 경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무

표 7. 희생高 * 낮선 사람/친한 사람 상황에서의 고마움 표현 방식 간 성차

상대와의 관계	표현방식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낮선 사람	무표현	남	1.90	1.10	
		여	1.68	.95	1.73
	언어적 표현	남	6.14	.85	
		여	6.30	.81	-1.53
	비언어적 표현	남	3.70	1.60	
		여	3.80	1.53	-.56
	물질적 보상	남	4.07	1.38	
		여	3.71	1.17	2.28*
친한 사람	무표현	남	1.84	1.17	
		여	1.46	.92	3.06**
	언어적 표현	남	5.84	1.10	
		여	6.07	.94	-1.78
	비언어적 표현	남	3.74	1.68	
		여	4.17	1.36	-2.39*
	물질적 보상	남	5.18	1.45	
		여	5.40	1.32	-1.34

** $p < .01$ * $p < .05$

표현)이 높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희생低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친밀성에 따른 고마움 표현 방식 간 남녀 차

희생低의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친밀성(낮선 사람/친한 사람)에 따라 남녀간 고마움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낮선 사람인 경우, 비언어적 표현에서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무표현($t=3.07, p < .01$), 언어적 표현($t=-3.16, p < .01$), 물질적 보상($t=3.42, p < .01$)에서는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선 사람으로부터 작은 희생을 받은 경우, 표현하지 않거나($t=3.07, p < .01$) 물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성

($t=3.42, p < .01$)이 더욱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언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경향성($t=-3.16, p < .01$)이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방이 친한 사람인 경우, 언어적 표현($t=-1.99, p < .05$)과 물질적 보상($t=2.49, p < .05$)에서만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친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때 여성(평균 5.91)은 남성(평균 5.65)에 비해 언어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평균 4.11)은 여성(평균 3.69)에 비해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 희생低 * 낮선 사람/친한 사람 상황에서의 고마움 표현 방식 간 성차

상대의 특성	표현방식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낮선 사람	무표현	남	2.04	1.19	3.07**
		여	1.65	.92	
	언어적 표현	남	5.92	.98	-3.16**
		여	6.28	.88	
	비언어적 표현	남	3.46	1.68	.73
		여	3.31	1.55	
	물질적 보상	남	2.80	1.43	3.42**
		여	2.29	1.08	
친한 사람	무표현	남	2.02	1.21	1.49
		여	1.81	1.12	
	언어적 표현	남	5.65	1.17	-1.99*
		여	5.91	.92	
	비언어적 표현	남	3.78	1.52	-1.57
		여	4.06	1.39	
	물질적 보상	남	4.11	1.41	2.49*
		여	3.69	1.36	

** $p < .01$ * $p < .05$

논의 및 결론

최근 들어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이름으로 행복과 재미, 감사 등의 긍정 정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강점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 심리학은 심리학이 정신장애, 심리적 결함, 부적응행동, 이상심리와 같은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강점과 자원, 긍정적 측면을 탐구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권석만, 2008).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현재 심리학계에서는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개방형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고마움 경험의 주요 요인인 ‘상대

방의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를 토대로 스크립트를 제작하여 고마움의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에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미있는 몇 가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은 희생低에 비해 희생高 상황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는데($t=21.07, p<.001$),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 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희생정도가 작은 상황에 비해 희생정도가 큰 상황에서 더욱 고마움을 느꼈다. 한편 희생低 상황에 대해서는 남녀간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비슷하였으나, 희생高 상황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t=-2.33, p<.05$). 희생高상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고마움 경험 정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상황에 따라 고마움 경험에 대한 남녀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많은 정서관련 연구결과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경험을 더욱 많이 하며, 더 강한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몇몇 연구들은 정서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Kring & Gordon, 1998). Kring과 Gordon(1998)은 슬픔, 행복, 공포, 분노 등을 나타내는 영화를 감상한 후의 반응에 있어서의 남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표현적인 표정을 보였으나, 그들이 느낀 정서의 정도를 언어적으로 보고하게 했을 때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으며, 신체적 정서반응에서는 남녀차가 없거나 오히려 남성이 더 높은 신체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낯선 사람보다 친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t=2.77, p<.0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정-우리성 관계를 통해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최상진(2003)은 정의 관계가 서로를 의지 및 신뢰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조언이나 문제해결책을 주고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적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기범(2009)은 경로분석을 통해 정은 상대를 배려하거나 아껴주는 행위를 통해 활성화됨을 밝혔다. 이는 ‘정이 든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 간에는 상대를 배려하거나 아껴주는 행위를 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희생, 헌신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전제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친한 사람의 배려하고, 아껴주는 희생의 행위는 ‘우리 사이에서는’ 고맙지만 그렇게 고맙지도 않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희생정도와 친밀성정도에 따른 남녀간 고마움 표현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낯선 사람이 큰 희생을 했을 때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물질적으로 이에 대해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t=2.28, p<.05$). 남성들이 고마운 마음을 물질적 보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성은 친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한 상황을 제외한 다른 상황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데, 낯선 사람($t=3.42, p<.01$)과 친한 사람($t=2.49, p<.05$)이 작은 희생을 한 경우에도 여성에 비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가지 스크립트에 대한 표현방식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표현 방식에 따라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언어적 표현(남: 3.66, 여: 3.84)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남: 5.89, 여: 6.14)도 많이 하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물질적 보상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남: 4.04, 여: 3.77),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이 높은 것(남: 1.95점, 여: 1.65점)으로 드러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서표현성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증명해왔으며(Gross & Levenson, 1993; 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고마움 정서표현도 이들 연구와 유사하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이 더욱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질적 보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상황에 대해 이를 되갚으려고 하는 빚짐의 마음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남녀의 사회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여성에게 있어 고마움의 경험과 표현은 사회적 관계맺음을 강화하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무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장정주, 김정모, 2008; Kshadhan, Mishra, Breen & Froh, 2009). 장정주와 김정모(2008)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밝혔으며, Kashdan, Mishra, Breen 그리고 Froh(2009)는 여성은 고마움의 정서경험과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이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고마움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남성이 고마움의 표현을 위약함, 의존성, 또는 빗집의 감정 등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남성에게 있어 고마움의 마음은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빛진 마음을 갖게 만들며, 상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스스로가 위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를 되갚고자 동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친한 관계보다는 낯선 관계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보다는 낯선 관계일 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고마움 표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친한 사람이 작은 희생을 한 경우에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언어적 표현을 통해($t=-1.99, p<.05$), 남성은 여성에게 비해 물질적 보상을 통해($t=2.49, p<.05$)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친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한 경우에는-희생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고마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표 2 참고)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비언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았으며($t=-2.39, p<.05$), 남성들은 여성에게 비해 표현하지 않는 경향($t=3.06, p<.01$)

이 더욱 높았다. 이 결과는 친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한 경우의 고마움 표현방식은 성차와 함께 문화적 해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성과 정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서로 상이한 대인관계방식을 보이는데, 한국인의 우리성 대인관계의 주 화폐는 행위교환이라기 보다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읽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최상진, 2000),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관계와 현실논리를 따지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최상진, 2003). 특히 남성의 경우-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정서표현성이 여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 남성들 간의 우정/상호작용에 대한 신화, 군대문화 등을 통해 우리성-정관계 간의 마음교류방식이 더욱 강화되었을 수 있다. 고등학생의 효도행동과 표현방식을 살펴본 신영이, 김의철, 박영신(2008)의 연구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말보다 실천하기’의 방식으로 효를 표현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어머니(남: 3.7%, 여: 2.1%)에게 보다 아버지(남: 6.5%, 여: 3.7%)에게 더욱 ‘말보다 실천하기’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친밀한 정도에 따른 고마움 정서경험의 성차를 살펴보면(표 4), 여성은 상대방이 낯선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냐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남성은 낯선 사람보다 친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t=2.13, p<.05$). 본 결과를 보다 면밀히 해석하기 위해 희생정도×친밀성정도의 각 상황에 따른 고마움정도에 대해 남녀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희생高×친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01수준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여($t=-2.78, p<.01$), 남성(평균: 6.16점)이 여성(평균: 6.40점)에 비해 친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한 경우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세 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친한 사람의 큰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작다는 이상의 결과와 친한 사람의 큰 희생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무표현)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서로 중첩시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친한 사람의 큰 희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도 여성에 비해 덜 느끼며, 표현도 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는 부부관계, 연인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의 상당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남녀간에 자신의 노력이나 상대를 위해 희생했었던 마음을 상대방이 잘 헤아려 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비록 보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때 남성들이 우스개소리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해야지 아니?’, ‘마음은 안그런데 표현이 잘 안되네...’ 등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이러한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데,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마움에 대해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이 높기도 하지만 여성이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남성들이 실제 그 만큼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경향성도 있음을 반영한다.

상대의 행위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의 정도(고마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와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때,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행위(고마운 마음의 표현 행

위)는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친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마움의 정서경험 및 표현은 사회적 교환이론처럼 투입대비 산출되는 결과를 이성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나타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녀간에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와 표현방식의 차이는 남녀 간 의사소통갈등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고마움을 느끼는 상황과 표현방식 등 구체적으로 ‘고마움’이라고 명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고마움과 감사 정서를 학문적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자들 간에도 고마움과 감사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mmons(2004)는 감사(gratitude)를 타인이나 사물에 의해 얻게 된 이익, 혹은 자연에 의한 평화로운 축복의 순간 등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고마움(thankfulness)과 기쁨(joy)으로 반응하는 마음상태로 정의하였으며, Orthonoy, Clore 그리고 Collins(1987)는 감사가 고마움과 칭찬(호의를 베푼 사람의 행위를 칭찬할 만한 것으로 평가)의 혼합감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Emmons와 Crumpler(2000)는 감사를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수익자가 되고 난 후에 느끼는 고마움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감사와 고마움이 둘 다 정서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고마움에 비

해 인지적인 평가의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마움과 감사가 동일한 정서상태의 서로 다른 표현인지, 혹은 유사하나 질적으로 다른 정서 상태인지 등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낯선 사람에게 받는 도움행동과 친한 사람에게 받는 도움행동의 내용이 스크립트마다 다르게 구성되었다. 즉, 제작된 8개의 스크립트 내용이 상이한데, 이는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낯선 사람과 친한 사람 간에 발생하는 도움행동은 내용적으로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판단 하에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사례를 중심으로 스크립트를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크립트의 제작은 희생 高/低의 수준은 통제할 수 있으나, 희생 高 스크립트 간 혹은 희생 低 스크립트 간의 희생정도수준을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인의 연구자가 많은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연구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고마움 정서경험과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친한 사람이 작은 희생을 한 경우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적 표현을 하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물질적 보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친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한 경우에 여성은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하며, 남성은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가 어떤 원인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어떤 변인들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빛짐의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최근 고마움에 관한 연구는 고마움과 빛짐의 마음이 서로 구별되는 정서일 수 있음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Algoe, Gable & Maisel, 2010; Tsang, 2006b; Watkins, Scheer, Ovnicek & Kolts, 2006). 즉, 고마움은 긍정적인 정서상태임에 비해 빛짐은 각성과 불편감을 수반하는 부정적 정서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회피의 동기에 의해 유발되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행동을 받는 상황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고마움과 빛짐의 정서상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녀가 자신의 정서상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성향척도(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 김경미, 조진형, 김동원, 김정희 (2009). 성인 여성의 감사대상, 이유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91-208.

- 김기범 (2009). 정(情) 마음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47-163.
- 김별님, 이인혜 (2009). 감사지각이 자기초점주의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63-382.
- 노지혜, 이민규 (2011).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159-183.
- 노혜숙, 신현숙 (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성·세대·성격유형에 따른 정서반응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송경재, 김윤영, 박을우, 박성미, 신지영, 한성열 (2010). ‘빼침’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1), 43-61.
- 신영이, 김의철, 박영신 (2008). 고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효도행동과 언어표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0-161.
- 신현숙 (2007). 글쓰기에 표현된 청소년의 감사대상과 감사이유의 성차와 발달적 차이. 청소년학연구, 14(5), 125-147.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정영숙 (1999). 친밀성이 이타행동이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106-116.
- 최상진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2003).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박가열, 손영미, 이장주 (2003). 지하철에서 누가, 왜 자리를 양보하는가?: 양보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43-66.
- 최상진, 손영미, 박정열, 이경언 (2000). 친밀관계에서의 ‘빼짐(토라짐)’의 심리적 기제, 과정, 표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사회 및 성격, 80-81.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91-234.
- 최상진, 최수향 (200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1-9.
- Algoe, S. B., Gable, S. L., & Maisel, N. C. (2010). It's the little things: Everyday gratitude as a booster shot for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7, 217-233.
- Barrett, L. F., Lane, R. D., Sechrest, L., & Schwartz, G. E. (2000). Sex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027-1035.
- Byran, J. H., & London, P. (1970). Altruistic behavior by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73, 200-211.
- Diessner, R., & Lewis, G. (2007). Further validation of the 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test(GRA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7(4), 445-447.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 169-200.

- Eisenberg, N. (1983). Children's differentiations among potential recipients of aid. *Child Development, 54*, 594-602.
- Emmons, R. A. (2004). The psychology of gratitude: An introduction.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 Crumpler, C. A. (2000). Gratitude as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56-69.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Froh, J. J., Kashdan, T. B., Ozimkowski, K. M., & Miller, N. (2009). Who benefits the most from a gratitude interven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xamining positive affect as a moderator.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408-422.
- Fujita, F., Diener, E., & Sandvik, E.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 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27-434.
- Geraghty, A. W. A., Wood, A. M., & Hyland, M. E. (2010). Attrition from self-directed intervention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predictors, technique and dropout from a body image interven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71*, 30-37.
- Graham, S. (1988). Children's developing understanding of the motivational role of affect: An attributional analysis. *Cognitive Development, 3*, 71-88.
- Gross, J. J., & John, O. P. (1997). Revealing feelings: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in self-reports,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35-448.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 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Kell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Naito, T., Wangwan, J., & Tani, M. (2005). Gratitude in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and Thai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2), 247-263.
- Orthony, A., Clore, G. L., & Collins, A. (1987).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tz, S. H., & Rubel, T.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1010-1028.
- Sommers, S., & Kosmitzki, C. (1988). Emotion and social context: An American-German comparis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35-49.
- Tesser, A., Gatewood, R., & Driver, M. (1968). Some determinants of gra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33-236.
- Toussaint, L., & Friedman, P. (2009). Forgiveness, gratitude,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affect and beliefs. *Journal of Happiness Study*, 10, 635-654.
- Tsang, J. (2006). The effects of helper intention on gratitude and indebtedness. *Motivation and Emotion*, 30, 199-205.
- Ventimiglia, J. C. (1982). Sex roles and chivalry: Some conditions of gratitude to altruism. *Sex Roles*, 8, 1107-1122.
- Wakins, P. C., Scheer, J. Ovniek, M., & Kolts, R. (2006). The debt of gratitude: Dissociating gratitude and indebtedness. *Cognition and Emotion*, 20(2), 217-241.
- Wa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5), 431-452.
- Wood, A. M., Froh, J. J., & Geraghty, A. W. A. (2010). Gratitude and well-being: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890-905.
- Wood, A. M., Joseph, S., & Maltby, J. (2008). Gratitude uniquely predicts satisfaction with life: Incremental validity above the domains and facets of the five factor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49-54.

1 차원고접수 : 2011. 10. 28.

심사통과접수 : 2011. 12. 7.

최종원고접수 : 2011. 12. 15.

Gender Differences in Appreciation Experience and It's Expressiveness

Youngmi Sohn

Myongji Univ

Hyo-chang Kim

Inchun Univ

Chungwoon Kim

Myongji Univ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ppreciation experience and it's expressiveness. For this, employees were asked to record how they feel appreciation in 4 thankful situations(cost to the benefactor: high/low cost × familiarity with the benefactor: stranger/familiar person), and how and how much they express their thankful emotion. The data of 280 university students(male: 164, female: 116)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employees were more likely to feel thankful in high cost condition and stranger condition. Secondly, male was more express appreciation in terms of material compensation than female. Thirdly, while female more highly express their appreciation by nonverbal communication, male more highly use 'no-expression' in the high cost/familiar condition. Finally, in the high cost/familiar condition, male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female on the degree of appreciation. Moreover male was less likely to express their thankful emotion than female.

Key words : *Thankfulness, appreciation, emotion, expressivity, Korean, relationship*